

목
 록

2015_1	1
2015_2	2
2015_3	3
2015_4	4
2015_5	5
2015_6	6
2015_7	7
2015_8	8
2015_9	9
2015_10	10
2015_11	11
2015_12	12
2015_13	13
2015_14	14
2015_15	15
2015_16	16
2015_17	17
2015_표지 찰림	18

내림비치

‘내림비치’는 순우리말로 ‘목차’를 뜻합니다.

여는 글

롤링페이퍼

지정소식

한 해의 마무리, ‘지정인의 밤’

심장이 쿵하고 설레었던 연합MT

스승의날, 교수님과함께 했던 훈훈한 시간

축제 너는 내 취향저격

‘평생지기’를 만나다

33대 회장단 인터뷰

2015년 집부이야기

지정인소식

cool한 셀러를 만나

해외봉사! 관심있는사람 드루와~드루와~

북 페스티벌 - 성북구 책 이야기

취업Zone

사서로의 한 발자국

미래의 나를 엿보다, 취업경진대회

특집기사

지정인설문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연속간행물실

발행후기



한 조각가가 있었다. 작품 창작에 몰입하던 어느 날 아주 아리따운 여인상을 만들어낸다. 여인상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만 조각가는 남몰래 조각상에 옷을 입히고, 살짝 입을 맞추고, 구석구석을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보살피면서 매일 매일을 보낸다. 이렇게 조각상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이어가면서 그는 간절한 소망을 하나 가지게 된다. 이 조각상이 실제 여인이었으면 하는 가슴 절절한 바람을..... 그의 지극한 사랑과 염원이 하늘까지 닿았던지 마침내 조각상은 실제 여인으로 변해서 그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

널리 알려진 그리스·로마 신화의 피그말리온 이야기이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메시지는 사실 아주 간단하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모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는 보여 준다.

우리는 크고 작은 소망들을 품고 살아간다.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욕망대로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술술 풀리기도 하지만, 신화 속의 이야기와는 달리, 대체로 소망하는 것들이 내게 쉽사리 길을 열어주지는 않는다. 우리네 삶의 고뇌는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마음껏

손에 넣지 못하는 까닭에서 비롯된다. 그런 좌절의 경험이 때로는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신화 속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간단히 치부되어 버리고 만다.

그렇지만 나는 정말로 이야기를 믿는다. 살아가면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었는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중요한 원동력이고 계기가 되어서 나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과 숙성 그리고 단련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 기다림과 숙성의 시간을 옹골차게 견디지 못하고 쉽게 좌절해 버리고 말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대학을 마치고 곧바로 직장에 취직해서, 사서로서의 삶을 살던 나는 꽤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진학했다. 오랜 직장 생활의 나른함을 학업을 통해서 해소하고 싶었고, 사서로서의 짧지 않은 경험을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늦은 나이에 나를 박사과정으로 이끌었다.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일이 결코 수월할 수만은 없었지만, 새로운 꿈을 나를 달르게 하기에 충분했다. 마흔을 훌쩍 넘은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겨우겨우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성대학교에 자리를 잡는 커다란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아마도 지금의 나는 그 시절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 시절의 간절함은 나를 지탱하는 삶의 에너지였고, 세상을 내게 이롭도록 변화시키는 기운찬 파동이였다.

그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파동의 힘을 몸소 체험하고 싶지 않은가? 그 파동은 내 삶과 우주를 바꾸는 신비한 힘을, 돌조각에도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전능한 힘을 지니고 있다.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가? 그 간절함에 온 몸을 맡겨 보시라. 그리고 참을성 있게 준비하면서 자신을 숙성시켜라. 그러면 곧 세상은 그 문을 활짝 열어 당신을 포근히 품어 줄 것이다.

지식정보학부

이호신

지정 롤링페이퍼



고민지 : 처음에는 공부가 내가 생각했던 것 부분과 달라서 당황스러웠다. 그렇기에 고민하고 방향하느라 학점관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2학기 때부터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할 생각이다.

고정현 : 좋은 동기들, 선배님들을 만나서 너무 좋고, 생각했던 것 보다 학교생활이 재미있는 것 같아서 행복하다. 지정과 만세♡

구영우 : 한 학기를 보내고 전공이 꽤 어렵다고 느꼈다. 그래서 학점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기범준 : 처음 지식정보학부에 들어올 때 설렘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 좋았다. 한 학기가 지난 지금도 모르는 것도 많고 서툰 점도 많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강희 : 한 학기를 허황되게 보낸 것 같아서 후회가 좀 남았다. 2학기 때는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 전공이 나랑 정말 안 맞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과 인 것 같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김남정 : 좋은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행복했고, 남은 시간들도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다. 좋은 동기들 좋은 선배님들 덕분에 1학기 잘 보낸 것 같고, 앞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며 많은 경험들을 하고 싶다.

김도현 : 한 학기동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재밌었고 앞으로도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김세원 : 동기들, 선배님들 모두들 착하고 친절하 것 같다. 늘 밝은 분위기가 마음에 들고, 학점 관리도 열심히 할 것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무난한 삶을 즐기고 싶다.

김수정 : 아무것도 모른 채 입학한지가 었그제 같은데 벌써 1학년이 다 지나갔다. 1년 동안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나다니 허무한 것 같다. 남은 학기 동안 열심히 지내야겠다.

김용진 : 좋은 과인 것 같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다.

김종현 : 처음 접하는 학문이 낯설어서 1학기 때는 방향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전공을 이수하겠습니다!

김주미 : 막연히 사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했던 과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서 좋았다. 그 때문에 너무 놀러 다녀서 2학기엔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김희경 : 지정과 좋아요♡ 교수님들 최고! 2학기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희주 : 우리 지정 교수님들도 좋고 선배님들도 좋고 동기들도 좋아요 꼭 잘 부탁드립니다!

노홍우 : 생각보다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놀러 다녀야겠다.

박세준 : 한학기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좋은 동기들, 선배들, 교수님을 만난 것 같아 기쁘고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남은 학기들도 재밌고 알찬 학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박효정 : 오랫동안 고민하고 선택한 과였지만 들어오고 나서 다시 내게 정말 맞는 과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어렵지만 많은 걸 배우고 있는 느낌이고, 좋은 교수님들 친구들을 만나서 기쁘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

배지연 : 적응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적응한 것 같아서 행복했다. 좋은 동기들, 선배님들을 알게 되어서 제일 좋다!

백승민 : 지식정보학부에 입학하여 한 학기동안 배운 전공들도 흥미로웠다. 게다가 좋은 동기들을 만나게 되어서 행복했다.

서준원 : 한 학기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면서 즐거웠고 2학기에는 좀 더 열심히 생활해야겠다.

손수아 : 대학교에 들어와서 1학기 정말 신나게 놀러 다닌 것 같다. 2학기에는 학점관리도 열심히 하면서 동기들과 더 열심히 놀러 다녀야겠다. 특히 전공과목은 더욱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손재희 :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이 가장 기쁘다. 새로 학교에 들어와서 적응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좋은 동기들과 선배님들 덕에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요!

안승수 : 한 학기동안 전공을 배우는 점이 조금 어려웠고 이해하기 힘들었다. 2학기에는 좀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다.

엄소희 : 2학기 수업이 어려워서 힘들 것 같지만 2학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경선 : 생각보다 많은 경험을 해서 자잘한 배움이 많았던 것 같다. 앞으로도 더 많이 놀러 다녀야겠다.

이윤희 : 2학기에는 전공수업도 어렵지만 열심히 듣고 싶고, 모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영 : 한성대학교에 입학하여 한 학기동안 재미있게 대학생활을 잘 즐긴 것 같아 재미있었다. 앞으로 여러 분야의 학문들을 배우고 싶고, 동기들과 잘 지내고 싶다.

이지항 : 처음으로 대학교에 와서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해보았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장여은 : 지정과 짱짱♡ 15 짱짱♡ 다 착해서 좋아♡ 공부 어려운 것만 빼면 다 좋다!

전채연 : 1년 동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 새로웠다. 남은 학기엔 열심히 공부 하고 싶다.

정경은 : 처음에 전공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배워보니 재밌고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동기들과 선배님들! 덕분에 한 학기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정과 만세♡

정보은 : 모든 것이 처음이라 새로웠지만 한 학기를 보내면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 앞으로도 조금 더 계획적으로 보내고 싶다.

정서영 : 동기들, 선배님들이 너무 좋았고, 생각보다 전공 공부도 재밌었다. 이제 2학기는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정진수 : 지정과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조혜서 : 전공 점수를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1514040 조효지 : 좋은 교수님! 좋은 동기들! 화이팅!

최시은 : 우리 교수님, 선배들, 동기들 좋아요! 2학기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최윤석 : 좋은 동기들을 만나서 좋고, 2학기는 1학기보다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재호 : 많은 경험을 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1학기보단 세상을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해본다.

최해은 : 솔직히 너무 어려운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점은 재미있어요! 2학기뿐만 아니라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하동원 : 경직되고 긴장하며 1학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고민하며 결정해서 기어코 들어온 좋아하는 과인만큼 더 많이 남은 학기들을 여유롭게 또 재밌고 알차게 보내고 싶다. 그렇다고 1학기가 싫은 것은 아니었다.

황영운 :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남기고 싶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지호 : 과 사람들 모두 좋으신 분이고 좋아요. 앞으로 좀 더 잘 지내보아요~

강현주 : 전공 수업이 너무 어려운 거 같습니다. 2학기 때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요.

공윤하 : 힘들지만 재밌습니다. 3년간 파이팅! 3년으로 끝나길





곽도희 : 남은 학기도 잘 지내요!

김도현 : 남은 기간 잘 부탁드립니다.

김민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현 : 1학기 동안 재미있었고, 남은 학기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나윤주 : 한 학기 재밌었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준 : 스무즈!

박상현 : 잘지내봐요.

박수빈 : 앞으로 남은 기간 같이 열심히 지내요!

안미나 : 남은 기간 파이팅 해요!

오지은 : 남은 3년도 화이팅해요.

이영기 : 생각보다 과하고 잘 맞는 것 같다.

이주식 : 잘지내봐요

이지윤 : 동기들도 선배들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지향 : 남은 기간 재밌게 보내요!

이태용 : 전공이 너무 빠세요, 그래도 열심히 지내봐요.

임예찬 : 2학기가 되어서 체력이 약간 딸리지만, 열심히 해야겠다.

임채현 : 힘들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장태원 : 지정과는 정말 최고의 과인것 같습니다, 남은 학기도 지정과에 몸바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보경 : 남은 기간도 재밌게 보내봐요!

정혜수 : 한 학기 잘 지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화성 : 남은학기 잘 지내요.

진근탁 : 이번 학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진예린 : 남은 기간 같이 잘 지내요!

최기철 : 잘 지냅니다.

최지훈 : 열심히

한승재 : 생각보다 힘들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태민 : 과 동기들도 좋고 전공도 좋아요! 앞으로도 사이 좋게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미리미리 과제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지정인의 밤'

편집 : 14강주영

기사 : 14황아영

2014년 11월 27일, 지식정보학부(이하 지정과)의 2014년도 마지막 행사인 '지정인의 밤' 한성대학교 미래관 DLC에서 열렸다. 지정인의 밤은 지정과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연말에 지정과의 교수님들, 학우들을 비롯하여 졸업생들 및 지정과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여 지정과의 1년을 돌아보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문대 학생회와 제 32대 회장단 및 학생회 인사, 제 31대 학생회의 회계보고, 특별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지정인의 밤 행사는 제 31대 학생회 지樂퍼樂(이하 31대 학생회)의 회장단에서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정다솜(12학번), 김현석(13학번) 학우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서는 31대 학생회 학생회장인 권혜진(11학번) 학우의 개회사가 있었다. 권혜진 학우는 개회사를 통해 학생회장으로서 보낸 1년간의 감사함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서 새로 취임한 인문대 학생회 회장단이 방문하여 축하인사를 하였다. 이번 인문대 회장단에는 1년 동안 지정과의 회장단에서 부학생회장으로 섬겼던 정다솜 학우가 인문대 부학생회장으로 취임하여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다.

다음으로 31대 학생회의 회계보고가 이어졌다. 그 다음, 학생회에서 준비한 동영상(지밤영상)을 보여주며 한해 간 이루어졌던 다양한 행사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31대 회장단과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청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31대 학생회는 문화부에서 준비한 특별공연으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였다.

이어서 제 32대 학생회 평생지기(이하 32대 학생회)를 소개가 이어졌다. 제 32대 학생회 학생회장 여지은(12학번) 학우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새로 당선된 회장단과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으로 임명된 학우들이 소감과 각오를 밝히며 인사를 올렸다.

지정인의 밤 행사에는 쉬는 시간 틈틈이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사회자가 청중들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학우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하였고 이외에도 노래부르기, 추첨 등을 통하여 학우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주었다. 학우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김현석 학우는 당시에 유행하던 크레용 팝의 직렬 5기통 춤 일명 배기통 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지정인의 밤' 행사에 맞게 밤이 늦도록 학우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심장이 쿵하고 설레었던 연합MT

기사 : 10김남호
편집 : 14김주영

2015년 3월 28일 토요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덕평 수련원으로 지식정보학부 학우(이하 지정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연합 MT를 떠났다. 이 연합 MT는 모든 학년들과 교수님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로 누구보다도 실패고 들뜬 마음으로 3월을 맞이한 새내기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총 11개의 조를 이뤄 약 100명의 지정인들이 함께 하였다. 지정인들은 출발하기 전, 학교에서 도시락을 먹고 식사를 하고 각 조 별로 사진을 찍고 나서 1박 2일 동안 지내게 될 이천 '덕평 수련원'으로 향했다.

덕평 수련원에 도착한 후에 짐을 풀고 연합 MT의 첫 번째 행사인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모든 게임은 조별로 진행되었으며, 줄다리기, 연합피구, 미션달리기, 계주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합피구는 두 조씩 연합하여 순발력과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미션달리기는 빨리 달리는 것보 다는 누가 얼마나 빨리 미션을 해결하는지가 중요했으며 다소 당황스러웠던 미션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정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미션을 해결하는 게임 이었고, 그렇기에 가장 재미있던 게임 이었다. 네 개 의 종목 전반에서 활약을 펼친 2조에게는 종합우승의 영광 및 상품이 돌아갔다. 2조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한 다른 조들도 체육대회를 즐겁게 마무리하였고, 좀 더 가까워지며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 가 되었다.

즐거웠던 체육대회를 마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덕평 수련원 식당에서 준비해주신 음식으로 식사를 하였다. 식사시간동안 모든 지정인들이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뜨겁던 체육 대회의 여운을 즐겼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연합 MT의 꽃인 장기자랑 시간이 이어졌다. 장기자랑 시간에 앞서 먼저 교수님들 소개가 이어지고, 학부장이신 박지영 교수님의 말씀과 학생회의 회계보고가 있었다. 회계보고가 끝난 후 문화부의 공연으로 장기자랑의 시작을 알렸다. 원더걸스의 'Tell me', H.O.T의 '캔디', 다이아믹듀오의 '고백', 에픽하이의 'fan' 으로 이루어진 멋진 무대가 이어졌다. 이번 해에는 춤뿐만 아니라 노래와 랩도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되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정인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받았다. 문화부의 공연 후, 본격적으로 각 조 15학번 지정인들의 장기자랑이 시작되었다. 약 일주일 간의 부족한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무대로 꾸며졌으며, 교수님들과 선배들의 힘찬 응원으로 15학번 지정인들은 무사히 무대를 마칠 수 있었다. 올해 장기자랑에서는 콩트를 준비한 4조가 1위를 하였다. 짧은 시간에 준비하기 힘들었을 콩트를 완벽하게 준비한 만큼 교수님들과 지정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장기자랑이 끝나고, 조별로 모여 교수님들과의 뜻 깊은 시간을 가지는 뒷풀이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 후, 본격적으로 어색했던 동기들과 서로 알지 못한 선후배간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일부 지정인들은 이른 새벽까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다음 날 오전, 컵라면으로 간단히 아침식사를 하고, 모두가 떠날 준비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즐거웠던 추억을 단체사진으로 남기며 1박 2일간 즐거운 연합 MT를 지냈던 덕평 수련원을 떠났다. 지정인들은 아쉬운 마음을 가진 채 학교에서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연합 MT를 마무리하였다.



knowledge information

스승의 날

교수님과 함께했던 훈훈한 시간

지식정보학부(이하 지정과)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함께해주신 교수님들께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가르쳐주신 것과 언제나 함께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교수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지식정보학부 학우들(이하 지정인)이 작성한 롤링페이퍼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학생회 측에서는 작년에도 동일한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선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던 교수님들의 모습이 떠올라 올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했다고 전하였다.

스승의 날 3일 전인 2015년 5월 12일, 지정과의 과실은 분주해지기 시작하였다. 각 교수님께 드릴 롤링페이퍼에 글을 남기려는 학우들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롤링페이퍼 꾸밈을 완성하자마자 학우들은 그동안 교수님께 감사했던 마음을 담아서 롤링페이퍼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15학번 학우들은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교수님이 많지 않고 교수님과 소통이 선배들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적어서 간혹 롤링페이퍼를 작성하는데 고민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만나 뵈지 못한 교수님들에게도 수줍게 안부를 여쭙는 글을 남기는 뜻깊은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반면 14학번 이상의 학우들부터는 능숙하게 글을 써내려갔다.

스승의 날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지만, 주간과 야간이 힘을 합쳐 서은경 교수님(인문대학장 겸임), 박지영 교수님(지식정보학부 학부장), 강순애 교수님(학술정보관장 겸임), 정경희 교수님, 김양우 교수님, 박성재 교수님, 박희진 교수님 그리고 이호신 교수님께 드릴 롤링페이퍼를 완성할 수 있었다.

전달식은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스승의 날 하루 전날 이루어졌다. 강순애 교수님은 학술정보관 관장실로, 나머지 교수님들은 연구동으로 찾아뵈었다. 미리 알려주신 시간에 맞춰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자 교수님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셨다. 들어가서 교수님께 곧 있을 스승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설명한 후, 지금까지 잘 가르쳐주시고 챙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교수님께서는 쑥스러워 하셨지만 고맙다고 해주셨다. 꽃을 달아드리고 교수님과 함께 사진을 찍은 후에 건물을 나왔다. 비록 이날 교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교수님에 대해 존경과 감사했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제지간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다녀온 후, 직접 전달식에 참여하였던 신입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서은경 교수님의 전달식에서 교수님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던 15학번 김남정 학우는 “교수님을 직접 뵈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뜻 깊었고 편지와 카네이션 선물에 너무 좋아해주셔서 감사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희진 교수님의 전달식에 참여하였던 15학번 손재희 학우는 “아직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수님과 교류가 적어 연구동을 찾아가는 것이 어색하고 긴장되었지만 반갑게 맞아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편지를 전해드리며 교수님과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였다.



축제

너는 내 취향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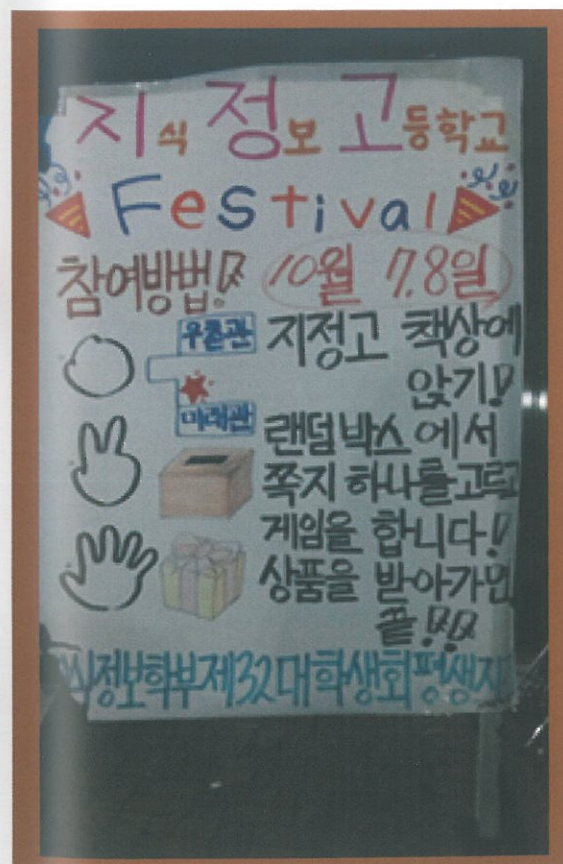
기사: 15박세준
편집: 15전보경

한성대학교에서는 2015년 10월 7일 8일 'MIROTIC'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열었다. 이번 축제에는 한성대학교 학생들의 학과별 축제부스와 캘리그라피와 해나 등의 유명인사 초청으로 꾸며졌으며, '나도 가수다', '젤리백' 그리고 레이사, 다이나믹 듀오 등의 유명 가수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단대별로 각각 우촌관 잔디밭, 공학관, 뽕꽃길 등 여러 곳에 자리가 마련되었다. 마련된 곳에서는 각 학과 학우들의 참여로 진행되는 개성 넘치는 학과별 축제부스와 주점 그리고 다채로운 참여 행사 또한 마련되어 있었다. 이번 축제는 특히 오랜만에 부활함과 동시에 전문적 보다는 한성대학교 학생들이 열정으로 만들어 온 축제인 만큼 볼거리가 많았다.

지식정보학부(이하 지정과)의 축제부스는 한성대학교의 우촌관과 미래관 사이 잔디밭에 마련되었다. 각 학과과 준비한 수많은 축제부스들로 매우 좁은 이곳은 부스 장소 중에서도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곳이었다. 예대와 인대의 부스들로 각 학과의 개성을 뽐내는 등 웅기충기 모여 있는 모습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정과에서는 축제부스로 '아이스크림과 사람에게 빠지다(이하 아사빠)'와 '지정고등학교(이하 지정고)'를 꾸몄다. 낮에 축제부스에서 아사빠 활동을 하였다.



아사파란, '아이스크림과 사랑에 빠지다'의 줄임말이다. 작년 청춘 셀러 페스티벌에서 지식정보학부 학우(이하 지정인)들이 선보인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아이스크림 라테일을 더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축제에 참석시켜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냈다. 아사파 라테일은 누구나 다 부담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달달하고 가벼운 느낌의 라테일로 아이스크림은 죠스바와 캔디바, 스크류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과 사이다를 섞은 라테일이었다. 학생회에서 고심 끝에 준비한 라테일이라서 그런지 준비해두었던 아이스크림의 재고가 보자라 더 사러가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아사파에 이어 저녁에는 아사파 축제부스에서 지정고 주점으로 바뀌었다. 지정고란, 지식정보학부 고등학교라는 뜻으로, 지정인들이 각자의 고등학교 시절의 교복을 입고 축제를 즐기는 등의 지정과만의 개성으로 주점을 이끌어나갔다. 지정고라는 타이틀에 알맞게 남녀노소 올 수 있는 친근한 교복이라는 컨셉과 더불어 부담 없이 사먹을 수 있는 이른바 '착한' 가격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저녁 밤이 깊어갈 즈음에는 지정과의 교수님들도 주점에 방문하셔서 답소를 나누셨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술 한 잔을 기울이시며 밤늦도록 고생하는 지정인들을 응원해주셨다. 그 모습을 본 한 지정인은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는 교수님들의 모습에 대학교지만 고등학교와 같이 친근하고 편한 모습을 느꼈고, 정말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M
I
R
O
T
I
C

'평생지기'를 만나다

기사 : 15조혜서
편집 : 14강주영

1. 학생회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여지은(12학번) : 1학년 때부터 학생회를 꾸준히 해왔었고, 거기다가 전 학생회장과의 친분이 있었기에 주변에서 학생회장을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 덕분에 학생회장에 관심이 생겨서 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김슬기(13학번) : 저도 역시 꾸준히 학생회를 하다가 부학생회장을 하게 되면 어떨까 싶었는데 마침 주변에서 먼저 같이 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부학생회장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회장단 활동 내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작년 지정인의 밤에서 학생회장단으로서 인사를 하면서부터 임기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후 이번년도 1월에 새내기배움터(이하 새터)를 준비하였으나 무산이 되어 하지 못하였고, 2월부터 개학 전까지는 신입생들을 받고 신입생 환영회나 정기모임(이하 정모) 등 신입생을 위한 행사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학생회 활동이 시작되면서 3월 말 지정고와 2015년도 연합MT를 기획했습니다. 이러한 행사 말고도 기획부가 진행하고 있는 간식사업에 저희가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는 당시에는 올해 축제를 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채 계획했던 일일호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 초에 갑자기 결정된 축제 준비에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말에 있을 지정인의 밤 행사를 준비하면서 임기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약적인 부분으로는 첫 번째로 간식의 다양화, 두 번째로 일일호프 결정, 세 번째로 과실 개선이 있습니다.

★평생을 두고 가까이 사귀는 친한 벗

3. 회장단이 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회장단을 하게 된다면 좋은 점은 일단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들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와서 보람찬 것 같습니다. 한 행사를 준비하기까지는 매우 힘들지만 끝나고 난 후에는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의 회장단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것이 다른 단대에 비하여 인문대학이 활성화 되어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덕분에 인문대학 회장단들끼리는 지금까지도 친분을 유지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친목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약간의 돈이 나오는데, 적은 돈이지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4. 회장단으로 활동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먼저 불편했던 점은 특히 이번년도에 학교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서 학생회가 학교의 일에 치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희가 나서서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고, 여기저기서 고군분투했지만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불편했고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행사에 대한 학우들의 참여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렵게 행사를 기획해서 나름 홍보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행사를 하면 그것에 대한 참여도가 적으니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생각도 조금 바뀌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를 해야 하고 취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마지막으로 접할 수 있는 곳이 대학교라고 생각되어서 여러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 학생회를 하면서 보람찼던 일은 무엇인가요?

여지은(12학번) :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행사를 마친 후 뿌듯함이 정말 큼니다.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무 사고 없이 끝냈다는 것이 가장 보람찬 일인 것 같습니다.

김슬기(13학번) : 제가 가장 보람찼던 일은 지정과 2015년도 연합MT를 무사히 다녀온 것입니다. 우리과의 큰 행사 중 하나이기도 했고, 신입생들을 데리고 외부로 나가는 것이 처음이기도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 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아무 안전사고 없이, 낙오자 없이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서 그 점이 제일 뿌듯하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6. 활동기간동안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새내기배움터(이하 새터)를 가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1년 중 모든 행사를 통틀어서 가장 재미있다고 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가야 재미있는 행사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겨서 지원을 못해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기획하고 준비를 마친 행사였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일이 없어진 것이 아쉬움이 컸습니다.

7. 지정과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여지은(12학번) : 요즘에는 곧 졸업하는데도 목표를 갖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때 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사람들을 통해 어떤 꿈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 학교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들도 많으니까 너무 취업에만 힘쓰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과에 오게 된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너무 과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갖고 모두가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슬기(13학번) : 과 행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 행사가 단지 놀려고 하는 행사가 아니라 선후배간 친목을 쌓기에도 좋고, 회장단을 비롯하여 학생회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석해서 편안하게 있다가 재밌게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15김남정
편집:14강주영

33대 회장단 인터뷰



1. 자기소개 및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오세원(13학번) : 1학년 때부터 학생회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 전 마지막 1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마침 주변에서도 많은 권유를 해주셔서 더욱 자신감을 갖고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지연(15학번) : 안녕하세요. 지식정보학부 15학번 배지연입니다. 입학 후 1학년 과대표를 1년 동안 맡아서 활동했었고 덕분에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범위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고민하던 중에 선배님들의 추천으로 부학생 회장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 제 33대 학생회 이름과 뜻은 무엇인가요?

제 33대 학생회 이름은 '너나들이'입니다. 서로 '너', '나' 하고 부르며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는 뜻으로, 예의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정인끼리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툼한 사이로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3. 주요 공약과 실천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공약 첫 번째는, 책 물려주기입니다. 대학교 서적은 가격면에 있어서 학우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전공이나 교양 책을 물려주는 공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강파티입니다. 과 학우들끼리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모임으로 신입생들 위주의 개강파티에서 재학생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과실개선입니다. 매년 나오는 공약이니 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공약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멀티탭 같은 학우들이 필요로 하는 소모품을 구비할 것이며, 항상 깨끗한 과실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지향하는 학생회, 회장단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세원 : 학생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중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항상 객관적인 입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연 : 저는 개인적으로 선후배간의 친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우 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편한 느낌의 회장단이 되고 싶습니다.

5. 제32대 학생회, 회장단에게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세원 :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학생회를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지연 : 학생회와 회장단의 단합을 배우고 싶습니다. 단합이 잘되면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시는 부분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6. 제 33대 학생회, 회장단으로써 앞으로의 각오와 다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오세원 : 학과 대표로서 항상 모범이 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회끼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다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학생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연 : 경력이라고는 1년 과대표 한 것밖에 없어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임기가 끝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2015년 집부 이야기

기사 : 15김수정
편집 : 14강주영

<기획부>

개강 전에 페이스북 등의 신입생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제공하였고, 연합MT의 장소를 답사하고, 시험기간에 간식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기 중 MT, 일일호프, 축제, 지정인의 밤 등 다양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자보를 제작하고, 페이스북을 통하여 공지사항, 행사 등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부장 이가은(14학번) : 지난 일 년 동안 학생회를 하면서 좋은 일, 힘든 일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 추억인가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학생회를 한다는 포부가 대단했었는데 돌이켜보니 생각보다 모든 일에 앞장서지 않고 이렇다 할만한 잘한 일이 없어서 많이 아쉬워요... 우리 과를 대표하는 학생회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강직하고 힘을 내어 집부를 이끌어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제일 고생한 지은 선배랑 슬기선배 진짜 최고예요 많이 실수하고 까먹었는데도 크게 혼 안내고 다 넘겨주시고ㅎㅎ 감사했습니다! 다른 집부 부장, 차장 모두 다 너무 수고했고ㅠㅠ 정말 다 같이 모여서 술 먹읍시다ㅠㅠㅋㅋㅋ 마지막으로 하현이, 우리기획부 차장ㅠㅠ 진짜 모지란 언니 만나서 고생 많이 했어 ㅠㅠ 고마운 마음을 여기에 글로 표현하려니 부끄럽다! 이래저래 정말 많이 고마워♡ 일 년 동안 잘 따라와 준 기획부 다들 고맙고 아이시페루~~♡ 15,14 전부다 사랑사랑♡

차장 박하현(14학번) : 1년 동안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라 힘들고 실수투성이였지만 그만큼 배운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기획부 사람들, 학생회 사람들까지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도활부>

도활부는 1학기에는 독서지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하계 방중에는 예일초등학교 장서점점 활동을 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성북 북페스티벌과 서울 북페스티벌을 참가하였습니다.

<도활부>

부장 최선아(14학번) : 솔직히 학생회를 하면서 남는 기억들이 좋은 것들만 있다고는 얘기 할 수 없지만, 좋든 나쁜든 모든 경험들이 제가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룹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책임감과 인내심을 요하는지 다시 한 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해준 도활부 친구들과 지금은 자리가 비었지만 도와준 차장 재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다 같이 고생한 학생회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차장 이재희(14학번) : 안녕하세요. 한 한기 동안 도활부 차장 직책을 맡아 왔던 14학번 이재희입니다. 제가 처음 학생회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한 각오는 부장님을 도와서 부 활동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각오였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활동에 힘써주신 부장님과 부원님들 덕에 별 일 없이 감사하게 일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부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활부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부>

문화부는 연합 MT와 지정인의 밤에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문화부>

부장 배정현(14학번) : 작년에 문화부 부장은 아니었지만 만행으로서 애들 통솔하고 거기다 춤까지 가르치다 보니 당연지사 차기 부장으로 낙인 되어 하는 수 없이 금년 문화부 부장 자리를 맡게 되었다. 학교 일 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따로 하는 일이 있다 보니 사실 학생회를 들어가 활동하는 것이 무리라 생각돼 걱정이 많았고 실상으로 바빠서 참여를 못하는 일도 있었다. 그저 새로 들어올 신입생 친구들과 조금이나마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던 것 같다. 우리 문화부 애들 평소에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하고 내 말에 잘 따라줘서 정말 고맙고 힘이 된다. 나에게도 문화부 친구들에게도 문화부 활동이 후에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차장 김예진(14학번) : 안녕하세요 지식정보학부 제 31대 학생회 평생지기 문화부 차장 김예진입니다. 문화부 차장을 맡으면서 보다 좋은 후배들과 가깝게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함께 공연을 계획하고 같이 땀 흘리며 연합 mt를 준비하고 좋은 무대를 꾸미면서 문화부에 들어오고 차장이 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부 후배들 항상 반갑게 인사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삼학년 되어서도 아는척 해주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편집부>

부장 강주영(14학번) : 편집부 부장을 맡고, 학생회 활동을 한 이번 일 년은 느낀 것도 많고, 많이 배운 것도 많은 해 인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았기에 부족한 저를 항상 옆에서 도와준 차장에게 너무 고맙웠고, 많이 알려주신 학생회와 잘 따라와 준 편집부 부원들 모두 다 고맙습니다! 그림비가 만들어지기까지 집부원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학부 모두가 만들어어나가는 것이고, 집부원이었을 때 했던 과정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림비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편집부도 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장 황아영(14학번) : 안녕하세요^^ 길이 남을 편집부!! 차장 황아영입니다. 벌써 임기가 끝날 때가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이번 한 해 동안 감사하게도 부족한 제가 차장으로 지내왔는데, 귀한 15학번 친구들과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좋았고, 다함께 2015년도 그림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차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지만, 자리를 맡게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부장으로서 너무 수고가 많았던 주영이에게도 감사하고, 평생지기 학생회 여러분 다들 너무 감사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래용!! 앞으로도 함께 합시다!! 그림비가 앞으로도 쭉~ 계속되기를~~♡

<편집부>

편집부는 지난 1년간 지식정보학부 곳곳에서 진행되었던 행사와 지정인들의 특별한 소식들을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편집과정을 거쳐 2015년도 그림비를 제작하였습니다.



2016 차기 부장 차장 소감

〈기획부〉

부장 정서영(15학번) : 안녕하세요 한성대 지식정보학부 15학번 기획부 차기 부장 정서영입니다!! 처음 선배님의 추천으로 기획부의 부원이 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한 것은 1학년인 저에게 많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으로 내년 기획부를 이끌어 나갈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는데,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래도 믿고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기획부를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부서별 활동과는 별개로 다른 부서와도 함께 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ㅎㅎ 열심히 하겠습니다!!ㅎㅎ 기획부 사랑해요♡

차장 강현주(15학번) : 안녕하세요! 2016년 기획부 차기 차장 강현주입니다. 지식정보학부에 들어와서 진짜 대학생활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 것이 기획부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부에 들어와서 연합엔티 답사. 자보 만들기, 간식 사업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사실 선배님들처럼 내년에 후배들을 잘 이끌어갈지 걱정은 되기도 하지만 차기 기획부 부장 서영이와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_^

〈도활부〉

부장 이경선(15학번) : 안녕하세요 도활부 차기 부장을 맡게 된 15학번 이경선입니다. 도활부 부장이 되어 학생회를 할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하고 부담도 됩니다. 전년도 부장님이 도활부를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제가 그만큼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지만 인수인계 잘 받아서 더욱 활성화된 도활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활부 사랑해요♡

차장 하동원(15학번) : 어찌다보니 차장의 자리에 오게 돼서 얼떨떨하고, 과연 내가 자격이 있는가 많이 고민도 되요. 사실 그냥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저 15학번 중 한 명으로 남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임원이네요. 고등학교 다닐 적에 동아리 역시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하다보면 싫어도 무언가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이 맞나 봐요. 실은 임원이라는 부담스런 자리가 무작정 좋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동기들이 선택한 것도 있고 한 번 맡은 것들은 책임감 있게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니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도활부 이름에 걸맞게 활동을 많이 물어(?)올까합니다. 잘될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결론은 차장으로서는 제 목표는 차기 부장인 경선이를 최대한 도와주고 앞서 말했듯이 많은 활동을 준비해보려 합니다. 부원들도 모두 귀찮더라도 같이 따라 와주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이 모자란 사람을 차장으로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만큼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부〉

부장 정경은(15학번) : 안녕하세요~ 문화부 다음연도 부장을 맡게 된 15학번 정경은이라고 합니다! 문화부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하기만 한데 이번에 운 좋게 부장을 맡게 되어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선배들, 동기들에게 많은 조언을 들으면서 약 1년이라는 시간동안 문화부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부장, 차장들로 구성된 과 학생회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배울 것이 많지만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부원들의 이야기 하나 하나에 귀 기울이는 문화부 부장이 되겠습니다! ㅎㅎㅎㅎ 문화부 사랑해요♡

차장 김강희(15학번) : 우선 다음해 문화부 차장으로 뽑아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문화부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문화부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과 행사 때마다 선배님들과 동기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차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지식정보학부 학생들에게 기쁨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후배가 모두 친구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활동하는 문화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차기 부장 경은이와의 호흡도 기대가 됩니다!



〈편집부〉

부장 김남정(15학번) : 안녕하세요! 편집부 차기 부장을 맡게 된 15학번 김남정이라고 합니다. 처음 편집부에 들어가기에 마음먹으면서 주변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말고 내가 맡은 일만은 최선을 다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편집부 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기도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차기 차장인 보경언니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함께 멋진 편집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점을 다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 힘들 수 있지만, 좋은 선배들과 동기들이 있기에 걱정보다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같이 일하게 될 16학번 새내기들과 동기들, 선배님들과 서로 많은 대화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편집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겠지만 항상 노력하는 편집부 부장이 되겠습니다!ㅎㅎㅎ 길이 남을 편집부 사랑해요♡

차장 전보경(15학번) : 안녕하세요! 편집부 차장을 맡게된 15학번 전보경입니다. 차장이 된 것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남정이를 도와 편집부를 이끌어간다는 것에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믿고 이 자리를 내어준 아영선배님, 주영선배님께 감사드려요! 앞으로 부장님인 남정이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처럼 학생회의 꽃인 편집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 그림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르네상스의 꽃 피렌체

5월14일 목요일, 한성대학교 미래관 지하에 위치한 Digital Learning Center(이하 DLC)에서 제 24회 학술정보관 문화행사인 저자와의 만남이 개최되었다. 제24회 학술정보관 문화행사인 저자와의 만남은 강순애 학술정보관장님의 인사말로 시작되었고, 한성대학교 강신일 총장님의 축사로 이어졌다. 제1부에서 다독상 시상식이 이루어졌고, 제2부에서 본격적으로 저자 강연, 질의응답, 저자사인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저자와의 만남은 '피렌체의 빛나는 순간'의 저자인 성제환 교수님이었다. 성제환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으셨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산업개발원' 원장과 '21세기 문화정책 위원' ,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원광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시다. 강순애 학술정보관장님께서 성제환 교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에 “어떤 이는 경제학자가 피렌체와 르네상스를 그것도 예술과 인문학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그 의구심이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인지 성제환 교수님은 그의 작품인 '피렌체의 빛나는 순간'을 르네상스 예술을 소개하는 기존의 책들과는 달리, 예술가와 인문학자를 후원했던 피렌체 상인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기술하셨다. 덧붙여서 이 작품에서는 당시 상인들과 예술가 사이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메디치가를 정점으로 그 앞뒤 시대까지 피렌체의 영광과 몰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성제환 교수님께서서는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르네상스 예술작품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여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이 책을 집필하셨다고 하였다.

성제환 교수님께서서는 ‘피렌체는 과연 예술가와 시인만의 이상적인 세계인가’라는 물음의 답으로 강연을 시작하셨다. 교수님께서서는 “르네상스는 돈과 권력, 종교, 사상이 난무하던 시대였다”고 하시며,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꽃이라 부를 만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피렌체에 주목해야하는가? 교수님께서서는 “고가의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돈이라면, 베네치아나 밀라노가 피렌체보다 앞섰어야 한다. 그러나 베네치아나 밀라노는 종교권력과 세속권력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에 살고는 있었지만, 르네상스만의 문화가 발전되지 않고 예전 문화를 복제하거나 이어받는 수준에 머물러있었다. 또한 두 도시는 피렌체에 비해 성직자와 상인 사이의 갈등이 적었다.” 라고 언급하셨다. 결국 교수님께서서는 이는 종교권력과 세속권력이 통합되어 새로운 시대를 꿈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기에 우리는 피렌체에 주목해야한다고 설명하셨다.

이어서 가난했던 수도원은 르네상스 시대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존재로써 피렌체 예술은 성경과 수도회 존재를 알리는 홍보매체이며, 르네상스 신흥 상인들의 부의 과시 및 영혼의 안식처였고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써 수도원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보물창고라고 말하셨다. 결국 상인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예술가들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였고, 예술가들은 상인들의 후원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성제환 교수님은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후원자의 요구나 감사 메시지를 엿볼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그는 “이로 인해 상인들의 종교와 사상이 녹아있는 예술작품은 피렌체를 예술의 도시로 불리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이셨다.

저자강연이 끝난 후 저자와 학생들 간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성제환 교수님께서서는 “한성대학교에 초청되어 학생들과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고,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 받았다”라는 소감을 남겨주셨다. 그 후 저자사인회를 끝으로 제 24회 학술정보관 문화행사인 저자와의 만남이 끝이 났다.

Cool~한 셀러를 만나다

*우리들의 작은 가게 [우*가*게] 프로젝트란?

서울시와 서울 산업 통상 진흥원이 진행하는 캠퍼스 CEO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주)TIPPLE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청춘 셀러파티 '우리들의 작은 가게' 프로젝트(이하 우가게)이다.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들이 5명 이내의 팀으로 구성되어 25만원의 소자본을 바탕으로 사업계획부터 실제 판매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창업 프로세스를 몸소 체험하여 창업가의 마인드를 고취하고, 자신의 역량과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인재 육성 사업이다. 초기투자금 25만원을 사용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정해진 3일 동안의 매출이 가장 높은 3팀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성대학교만의 창업경진대회이다.

이번 우가게에는 지식정보학부 12학번 정다솜 학우가 '레인보우 슬러시'라는 이름의 가게로 창업에 도전하였다.



1. 청춘 셀러파티에 지원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우가게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올해로 4번째입니다. 그동안에는 과친구들과 같이 추억을 쌓기 위해서 우가게에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함께 연계과정을 공부하면서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고, 또 공부에서 벗어나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 대회기간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대회기간동안 힘들었던 점은 아이템 특성상 차가운 음료수를 파는데 대회 기간 동안 날씨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5월 8일인 오늘에서야 조금 더워지고 있는데, 이를 내내 춥고 어제는 바람도 엄청 불어서 천막도 날아갈 뻔하고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슬러시 기계가 생각보다 우리 맘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기계 안의 얼음을 손으로 부수는 등 그런 점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우가게를 하고 있는 친구들끼리 마음이 약간 맞지 않아 의견 마찰이 있는 적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의견조율도 해야 하고, 가게도 운영해야 해서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만큼 분주했던 것 같아요.

2. 대회기간동안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우가게에서 직접 가게를 오픈하여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도 같이 하면서 서로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 마찰이 있어서 투닥투닥거리며 싸우기도 하였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더욱 돈독해지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서로 화난 것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쉽게 말하기도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솔직하게 화도 내고 이야기를 통해서 좋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4. 수익금은 어디에 쓰실 예정이신가요?

처음 계획에는 여행을 가고 싶어서 대회에 함께 참가하였던 친구들과의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었는데, 장사를 하고나니 수익이 어느 정도냐를 보고 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장사가 잘 된 편은 아니어서 수익이 나오는 것을 보고 불우이웃 성금도 내고 좀 더 좋은 일에도 쓰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계획했던 여행에 돈을 보탬 수 있으면 보태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Q&A

해외봉사!

관심있는 사람 드루와~ 드루와~

기사 : 18조혜서
편집 : 18전보경



1. 해외봉사로 어디에 갔었나요?
태국의 사티 초등학교를 갔다 왔다.

2. 해외봉사의 동기는 무엇 인가요?
먼저 돈을 안들이면서 외국에 오래 나가있고 싶은 것도 있었고,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 해외봉사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과 신청하게 되었다.

3. 해외봉사 신청 방법과 서류 합격 후 면접에 대해 알려주세요.

학기 초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신청서가 있는데, 그 신청서를 적어서 학생지원팀에 가져다 내면 된다. 그리고 서류 합격 후에는 여러 과 교수님들과 해외봉사 관련된 분들 앞에서 조를 나눠 면접을 보게 된다. 약 5분정도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동안 자기소개를 하거나 교수님들이 질문 하시는 것에 답변을 하면 된다. 한가지 팁을 주자면, 서류 쓸 때 자신이 잘하는 것은 빠짐없이 쓰는 게 좋다. 나 같은 경우는 k-pop 춤, 노래를 하거나 태권도, 사물놀이 등 문화 활동을 한다고 썼다. 굳이 문화 활동이 아니더라도 열정을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

Overseas volunteering

4. 해외봉사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8일차 교육 후 마지막 날 문화 공연으로 '0168의 이젠 안녕'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이다. 장난밖에 모르던 아이들도 거기에 계셨던 선생님들도 모두 부르면서 울었다. 특히, 봉사 당시 나를 유난히 따르던 장난기 가득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었드려서 울고 있던 게 보여서 가장 기억에 남았다.

5. 합격 되고 해외봉사를 시작 전 준비과정을 알려주세요.

면접까지 합격 되고나서 체력검정을 하게 된다. 체력을 쓸 일이 많은 게 왜냐하면 나중에 짐을 싸고 포장하는데 그것들을 옮겨야하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봉사 시작 전 하루 일정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까지 준비한 후 8시나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12시에 수업이 끝난다.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와서 그 날 수업이 어땠는지 평가한 후 교육 시연을 해보고 저녁을 먹는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그 날 총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체력이 좋아야 버틸 수 있다. 체력 검정을 한 후, 본격적으로 문화 공연 팀을 나눈다. 교육에서도 과학 체육 이런 식으로 다섯 팀을 만들고, 영상 팀, 책자 팀, 간호 팀 등을 만든다. 이렇게 100일 정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발대식을 하고 나면 잘 때가 된다.



6. 준비하면서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았나요?

물론 힘들었다. 해외 봉사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했고 심지어 학교시험 치는 전날까지 부채를 연습을 했다. 그러나 내가 다른 것을 준비해야 할 3,4학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는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준비를 잘 해가서 힘든 상황은 없었다.



7. 영어를 잘해야 해외봉사를 갈 수 있나요?

우리 학교를 올 정도의 영어실력이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영어는 현지에 있는 대학생들과 소통할 때 필요하다. 잘하면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무조건 잘 할 필요는 없다.

8. 여행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저학년들이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학년 때 선배들한테 예뻐 받을 일이 없었는데 해외봉사 팀에서는 막내가 되어 예뻐 많이 받았다. 그리고 입학하기 전에 많이들 꿈꾸던 선배와의 교류가 가능하다. 지식정보학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 선배들에게 대학 생활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진로가 불확실한 친구들이나 기획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 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해외 봉사를 가게 되면 봉사 프로그램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획하기 때문이다. 봉사 프로그램 뿐 아니라 식단, 공연, 예산 등을 직접 기획 해보면서 기획 경험을 쌓을 수 있다.

Q. 안녕하세요. 성북 북 페스티벌에 대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선아(14학번) :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정보학부 제 32회 학생회 평생지기에서 도서활동부(이하 도활부)의 부장을 맡고 있는 14학번 최선아입니다.

Q. 성북 북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으며,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최선아 : 우리 학교가 성북구에 안에 있는 학교로서, 또 지식정보학부(문헌정보학과 포함/이하 지정과)로서 매년 성북 북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도 성북 북 페스티벌 측에서 먼저 학생회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회장님께서 이러한 활동은 도활부가 맡아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시면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 올해 초부터 기회가 되면 도활부 부원들과 함께 성북 북 페스티벌에 꼭 참가해보자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희망하는 도활부의 14학번 친구들끼리 부스를 참가 하게 되었습니다.



북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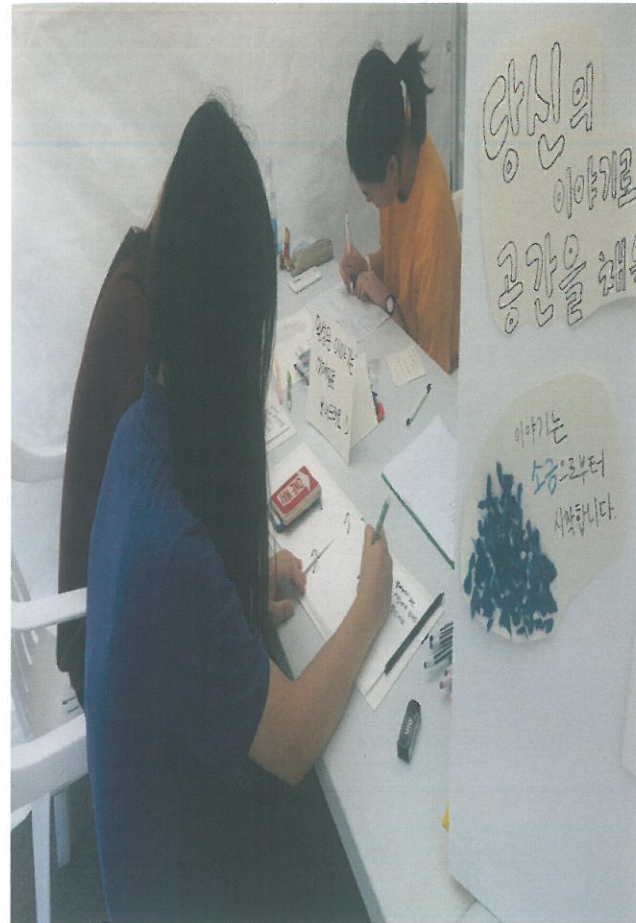
- 성북구 책 이야기

기사 : 15김남정
 편집 : 14강주영

Q. 그렇다면 성북 북 페스티벌이 생소한 학우들을 위해서 성북 북 페스티벌이란 어떤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선아 : 성북 북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책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생각하시는 축제처럼 여러 부스들이 세워지고, 공연도 진행되고, 이런저런 이벤트도 열립니다. 주제가 ‘책’일 뿐이지 다른 페스티벌들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Q. 성북 북 페스티벌에 대한 소개와 다른 성북 북 페스티벌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북 북 페스티벌만 가지고 있는 장점 한 가지 말씀해주세요!
 최선아 : 앞서 말씀 드렸지만 페스티벌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북 북 페스티벌만이 가진 특징이자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매년 ‘한 책 읽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김애란 작가님의 ‘두근두근 내 인생’, 올해는 박범신 작가님의 ‘소금’이 주제였습니다. 부스의 프로그램, 공연, 행사 등 전체적인 분위기나 주제가 선정된 책을 따라가게 되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를 통하여 모두가 같은 책을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에 대해 나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올해 성북 북 페스티벌이 동덕여대에서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되었고, 어떠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나요?
 최선아 : 부스참여를 했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보았던 것은 아니어서 많은 이야기는 해드릴 수 없지만, 제가 보았던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부스에는 여러 단체들이 참여했는데. 아이들을 위한 부스가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줄이 길게 서있었던 먹거리 부스들도 기억에 남네요. 길을 행진하던 음악공연도 재밌었습니다. 아무래도 목적과 취지는 페스티벌이니까 모두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닐까 싶네요!



Q. 성북 북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최선아 : 저희 부스는 ‘이야기는 소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이야기 릴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의 제일 첫 시작만을 그림과 한 줄의 문장으로 제시해놓고, 그 뒤는 참여하는 분들께서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 두 가지의 이야기의 첫 시작이 있었고, 각각 세 가지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어서 총 여섯 가지의 전혀 다른 이야기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 전개가 이루어져서 저희 또한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Q. 성북 북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나 내년에는 이런 점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최선아 : 아무래도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준비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남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미리 페스티벌 날짜를 확인해서 아이디어부터 준비까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도활부의 부장, 차장을 맡게 될 학우분들과도 이야기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성북 북 페스티벌에서 활동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선아 : 저희 부스에 와서 아예 자리를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리고 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장을 그리고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일까요? 물론 부스의 프로그램과는 전혀 관련 없는 활동이었지만 다음에도 부스참여를 하게 된다면 참고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성북 북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한 후에 달라진 마음가짐이나 배운 점 혹은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최선아 : 행사 안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처음이었는데, 어떤 일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알바를 할 때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 그리고 행사에 오신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도활부에서 부스참여를 하면서 노하우 같은 것들도 축적해 나가고, 대대로 다음 기수의 후배들이 더 원활하게 행사참여를 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서로의 한 발자국

기사 : 15 김수정
편집 : 15 장태원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학장이신 지식정보학부 서은경 교수님의 2015년도 사서 공무원 시험 특강이 2015년 4월 9일 한성대학교 미래관 지하 102호에서 진행되었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특강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였는데, 특강 주제가 사서 공무원 시험이다 보니 3,4학년들이 주를 이뤘고 드문드문 졸업생과 1,2학년들도 볼 수 있었다. 특강은 교수님이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정보학 분야 공무원 시험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정보학개론의 주요 개념을 짚어주신 다음 기출문제에 대하여 풀이하고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정보학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시험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시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시험 종류에는 국회도서관 5,9급 국립중앙도서관 7,9급, 지방직 9급, 등이 있다고 한다.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시험은 정보학개론, 정보봉사개론 두 과목을 전부 봐야 하지만, 지방직 9급 공무원은 정보봉사개론만 보면 된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정보학개론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정보학개론의 주요개념은 크게 디지털도서관, 정보검색, 정보학 일반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디지털 도서관은 Web 2.0 기술, 메타데이터, Open Access, 저작권, 정보검색은 정보검색 개념 및 단계, 자동색인기법/과정, 인용색인, 정보검색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학 일반은 Big Data, Linked Data, CCL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곧 시험 일정이 있어서인지 특강 중 제일 긴 시간을 차지한 부분은 기출문제에 관한 부분이었다. 마지막 순서로 다루었는데, 주로 기출문제를 풀이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지방직 9급 공무원의 기출문제를 다루었다.

국회도서관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였고, 국립 중앙도서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였고, 지방직 9급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였다. 교수님께서서는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또 반대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추세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특강을 들은 학생들은 매우 유익한 특강이었으며, 특히 곧 시험을 치를 3,4학년 그리고 졸업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학장이신 지식정보학부 서은경 교수님의 2015년도 사서 공무원 시험 특강이 2015년 4월 9일 한성대학교 미래관 지하 102호에서 진행되었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특강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였는데, 특강 주제가 사서 공무원 시험이다 보니 3,4학년들이 주를 이뤘고 드문드문 졸업생과 1,2학년들도 볼 수 있었다. 특강은 교수님이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정보학 분야 공무원 시험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정보학개론의 주요 개념을 짚어주신 다음 기출문제에 대하여 풀이하고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정보학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시험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시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시험 종류에는 국회도서관 5,9급 국립중앙도서관 7,9급, 지방직 9급, 등이 있다고 한다.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시험은 정보학개론, 정보봉사개론 두 과목을 전부 봐야 하지만, 지방직 9급 공무원은 정보봉사개론만 보면 된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정보학개론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정보학개론의 주요개념은 크게 디지털도서관, 정보검색, 정보학 일반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디지털 도서관은 Web 2.0 기술, 메타데이터, Open Access, 저작권, 정보검색은 정보검색 개념 및 단계, 자동색인기법/과정, 인용색인, 정보검색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학 일반은 Big Data, Linked Data, CCL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곧 시험 일정이 있어서인지 특강 중 제일 긴 시간을 차지한 부분은 기출문제에 관한 부분이었다. 마지막 순서로 다루었는데, 주로 기출문제를 풀이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지방직 9급 공무원의 기출문제를 다루었다.

국회도서관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였고, 국립 중앙도서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였고, 지방직 9급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였다. 교수님께서서는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또 반대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추세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특강을 들은 학생들은 매우 유익한 특강이었으며, 특히 곧 시험을 치를 3,4학년 그리고 졸업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취업Zone]

미래의 나를 엿보다, 취업경진대회

기사 : 15기범준
편집 : 15김승현



지식정보학부(이하 지정과) 주최로 시작된 취업경진대회의 발표회가 2015년 5월 27일 한성대학교 미래관 지하에 위치한 Digital Learning Center(이하 DLC)에서 열렸다. 취업경진대회란, 정해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그 기관 및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취지에서 2014년도부터 시작된 대회이다. 다양한 선배, 후배와 교류를 쌓을 수 있고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역시 얻을 수 있어서 지 지식정보학부 학우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정과만의 특별한 대회이다.

이 대회는 참가자들이 몇 개의 그룹을 이루어 지정과를 졸업한 선배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곳으로 직접 방문하여 문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구성원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년을 포함한 6명~10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팀이 방문해야하는 기관은 학사관리팀을 통해 정해진다. 선택된 방문지는 주로 도서관, 기록관 등으로 지정과의 주된 취업처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아모레퍼블릭(AMOREPUBLIC)조와 멘토스(MENTORS)조의 발표가 있었다.

아모레퍼블릭조의 발표는 도서관 소개와 도서관의 구체적인 활동, 선배들과의 인터뷰 순으로 진행되었다. 아모레퍼블릭조가 방문한 도서관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문화정보도서관이다. 2012년에 개관한 이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복지에 중점을 둔 지역 공동체 도서관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독서습관 촉진과 도서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모자 열람실'과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해둔 '북적북적(book+쌓을 적(積))'과 같은 아동을 위한 것에서부터 '실버북스타트'와 같은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강연을 통해 사람들이 인문학적 교양을 쌓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선배들은 인터뷰에서 다양한 경험과 자신만의 스토리,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에 대한 고민을 강조하였다고 전하였다.

멘토스조는 팀원들의 참가사유, 도서관 소개, 선배와의 면담, 채용에 대한 정보 순으로 진행되었다. 멘토스조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립도서관인 국회도서관을 방문하였다. 국회도서관은 1998년 이후 일반인에게도 개방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과 국립도서관으로써의 막중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장을 중심으로 의회정보실, 국회 기록 보존소 등의 6개의 주요부서와 18개의 하위부서로 이루어진 체계적 조직도를 가지고 있다. 선배와의 인터뷰는 사서가 하는 일, 사서의 마음가짐, 실무 등 실제 사서의 업무환경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인터뷰에서 선배는 특히 사서가 하는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마음가짐, 그리고 전공과 영어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에는 국회도서관의 취업률, 시험날짜 및 과목 등 국회도서관은 물론 공공도서관을 목표로 삼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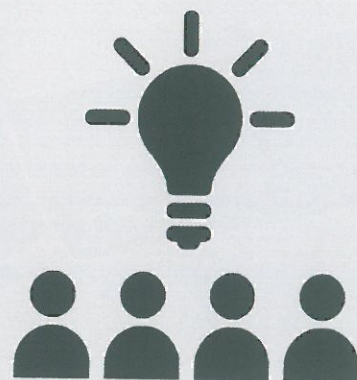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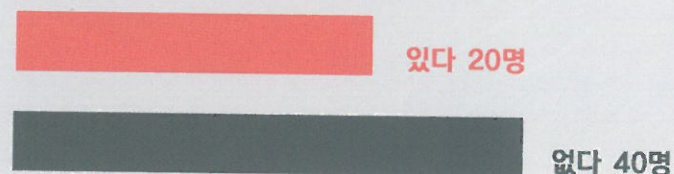
이후 간단한 휴식시간을 가진 후 현재 문헌정보학과와 관련된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봉재운(99학번) 동문의 강연이 이어졌다. 봉재운 동문은 대학졸업 후 지방직 사서 공무원, 석사학위 이수 등의 과정을 거쳐 국방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합동참모본부에서 기록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날 봉재운 동문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목적이나 의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요건, 관리요원들이 보관하는 기록물이 관리되는 절차나 일반 기록관과 특수 기록관의 차이점과 같은 기록 관리요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강의하였다.

청중들은 두 조의 발표 내용이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내용이었고, 강연은 기록관과 기록관리요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한다. 강연이 끝나고 아모레퍼블릭조와 멘토스조에 대한 시상이 마무리되면서 취업경진대회는 막을 내렸다.

지정인 설문

(설문 인원 : 60명)

1. 지식정보학부 내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2. 공강시간을 보내는 꿀팁



동아리방 · 과실 20명



도서관 19명



기타 (당구장, PC방, 기숙사 등) 12명



카페 9명

3. 대학생할 중 가장 많이 돈을 투자하는 부분은?



식비 24명



교통비 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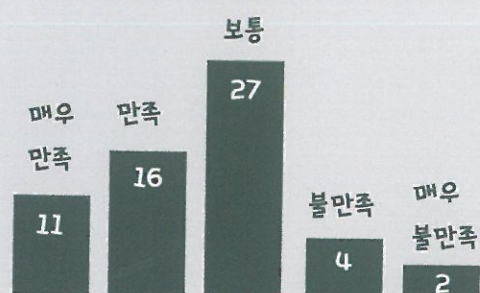


유흥비 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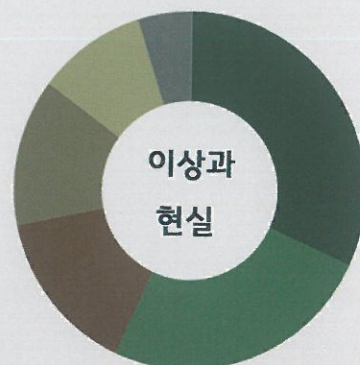


쇼핑 9명

4. 현재 나의 대학생할 만족도



5. 대학생할의 이상과 현실!!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 19명
CC (연애) 15명
성적 9명
전공의 흥미성 8명
조별과제 6명
기타 3명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연속간행물실



2015년 3월 12일, 학술정보관 5층에서 연속간행물실의 개관식이 열렸다. 기존에 1층에 위치하던 연속간행물실을 일반열람실이 있는 자리에 옮긴 것이다.

이 날의 개관식에서 강순애 학술정보관장님은 “새 학기를 맞아 자유롭게 토의하고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 공간에서 학생들은 잡지나 학술지를 보고, 공모전을 준비하고,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PC를 보거나 때때로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다른 열람실과는 다른 사랑방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강신일 총장님은 “건의는 받았으나 비용 문제로 고민하다 많은 분들이 학생 복지를 위해 만들자고 하여 만들어졌다. 학술정보관은 대내외에서 많은 호평을 받는 건물이고, 연속간행물실의 개관 역시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학생들과 교수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런 연속간행물실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 우선 입구에 들어서면 여러 학술지 및 잡지들이 꽂혀있는 벽장과 편안한 느낌을 주는 조명과 긴 테이블이 눈에 띈다. 들어가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학생들이 편하게 기대 설 수 있는 소파, 창가 쪽에 자리 잡은 익숙한 느낌의 책상이 눈에 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별실처럼 되어있는 곳의 문을 열면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형 그룹스터디실이 보인다. 여기 있는 화이트보드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공모전을 준비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계산대 부근에 설치된 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열람·출력용 PC는 이러한 활동들에 필요한 자료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밖에도 대형 테이블 밑의 멀티 탭,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흔적들이 알게 모르게 숨어있다.

연속간행물실은 다른 열람실과는 다르게 휴식을 목적으로 지어진 공간이다. 그런 목적에 맞게 조명, 인테리어, 시설 모두 편안한 느낌을 내면서도 학생들의 편의에 초점을 둔 흔적들이 보인다. 학생들 역시 세련되면서도 안락한 공간에 매우 만족하며 개관 첫날부터 많은 학생들이 연속간행물실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카페와 같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대화를 주고받고, 휴식을 즐기고, 그러면서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

발행후기

14 강주영 (편집부 부장)

작년 그림비의 발행후기를 쓸 때는 2015년 발행후기를 쓸 저의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2015년 그림비가 완성되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너무 빠르게 느껴집니다. 처음 부장의 자리를 맡았을 때, 설렘보다는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이번 년도에도 많은 조언을 해주신 우연선배님과 정예선배님, 부족한 점이 많은 나를 믿어주고, 내 툴툴거림을 다 받아준 진짜 너무 고마운 아영이, 힘들 때마다 응원해준 지은이, 바쁘게도 편집해준 우리 정민이! 그리고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묵묵히 편집해준 승현이, 보경이, 재희 언니, 태원이! 많이 챙겨주지 못했지만 항상 완성도 높은 기사를 써준 남정이, 혜서, 수정이, 세준이, 범준이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또, 항상 저희 편집부 그림비 걱정해주시고, 소재도 주신 학생회장님과 부학생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년엔 부장을 맡게 될 남정이와 차장을 맡게 될 보경이! 2015 그림비에 열심히 기여했다는 것을 알기에 내년 그림비도 기대가 됩니다! 지식정보학부 소식지인 그림비에 기여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림비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아쉽지만 편집부 모두가 열심히 한 결과물인 만큼 더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14 황아영 (편집부 차장)

안녕하세요. 작년 그림비에 차장으로서의 소감과 각오를 남겼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차장으로서의 1년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렇게 후기를 남깁니다. 부족한 저에게 차장이라는 자리가 허락되고, 편집부의 차장으로, 학생회의 일원으로 일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1년 동안 뭐가 그리 분주했는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바쁘고 정신없던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부장과 부원들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흔쾌히 제안을 받아주시고 여는 글을 써주신 이호신 교수님, 인터뷰나 설문 등에 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지식정보학부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해에는 작년에 비해 기사 소재도 많이 없고,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떤 기사들로 채울 수 있을까?' 등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내는 내내도 정말 많이 부담고 때로는 두렵기도, 버겁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주고,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부장 주영이 너무 고마워!!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와 준 부원들 - 남정이, 보경이, 혜서, 수정이, 범준이, 세준이, 재희언니, 승현이, 태원이 - 진짜 고마워! 정말 정말 수고 많았어!! 내년엔 길이남을 편집부를 이끌어 갈 남정이와 보경이! 항상 응원할게~ 새로운 부원들과 꾸며갈 그림비 기대합니다! 1년 동안 좋은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2015 그림비가 발행되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부원들이 하나하나 열심히 준비하고 완성한 작품들입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재미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길이남을 편집부를 응원해주시고, 그림비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2016 그림비도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편집부 되겠습니다.

14 이정민 (편집)

두 번째로 임하는 편집국원으로서 또 그림비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그림비 발행후기를 처음으로 썼는데 이번에도 쓸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작년만큼 편집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림비 발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그림비를 책임지고 열심히 후배들을 이끈 주영이와 아영이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올해 그림비를 위해 열심히 기사쓰고 꾸며준 15학번 후배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편집국원들이 정성을 기울인 그림비를 지식정보학부 학우분들과 교수님들 모두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 김남정 (기사)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에 입학한 후 편집부 일원으로 활동한것이 벌써 1년이 지나 그림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사를 맡아 쓰게 되었을때는 내가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는데 그럴때마다 편집부 선배님들의 도움과 조언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집부선배님들이 여태동안 만든 그림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했던게 3월초인데 벌써 1년이 지났다는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들 1년동안 고생 많았고! 차기 편집부 부장으로 걱정도 많고 내년에 들어올 16학번을 생각하면 설렘도 가득합니다! 저 혼자로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차장인 보경언니와 함께 내년에도 멋진 그림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1년동안 고생 많았고 저는 그림비가 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5 전보경 (편집)

2월에 정모자리에서 처음으로 편집부의 존재에 대해 들었던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11월이 되고 발행후기를 쓰게 되니 기분이 너무 이상하네요ㅠㅠ 편집부를 통해 얻은 것이 그림비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행복하고 기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편집하느라고 고생한 편집팀과 열심히 기사를 써준 기사팀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5 김승현 (편집)

편집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 편집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선배들과 동기들이 많이 도와줘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일 년 동안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벌써 일년이 끝나가지만 앞으로 남은 학기동안에도 즐겁게 편집부 활동을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즐겁게 활동해보아요~ 일 년 동안 편집부 수고하셨습니다.



15 조혜서 (기사)

글쓰기를 할 때 마음대로 쓰는 편이라 글을 잘 못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편집부에서 활동하면서 몇 번이라도 더 써보니 실력이 늘은 것 같아서 뿌듯하다. 편집부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인터뷰였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인터뷰 처음 했을 때의 떨림은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활동하면서 어려운 것들은 부장님과 차장님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5 기범준 (기사)

편집부를 하면서 자칫 놓칠 수
있는 교내의 행사나 이슈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그걸 글로 쓰는
작업도 힘들었지만 보람찬
일이었고요! 또 선배들이 제가
보완해야할 점을 다들 친절하게
이끌어 주신점도 감사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15 손재희 (편집)

처음 편집부에 들어와 가장
걱정했던점이 내가 제대로 된 편집물을
만들 수 있을까였다. 처음에는
규격맞추기조차 버벅거렸고 여전히
속도는 더디지만 편집했던 완성물들을
보니 뿌듯하다. 이번 그림비 발행에
참여하게되서 영광입니다!! 편집부
파이팅!!♥

15 장태원 (편집)

편집부를 들어가서 처음으로 편집 할
때 경험이 없어 많이 헤맸지만 점점
요령이 생겨 쉽게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람찼습니다. 편집을 하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림비에 내가 편집할
것이 실린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15 박세준 (기사)

지식정보학부에 들어오면서 학과가 무슨 일을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학과생활도 어려워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편집부에 들어온 후 학과생활도 조금씩 정리되고,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아낸 것 같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고 다듬어진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림비 만들기를 하면서 글쓰기 실력도 많이 늘은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음 년도에 16학번들이 들어오면 또
무슨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까 기대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뜻깊게 그림비를 만들었고
생각보다 재미있었기에 기분이 좋습니다.

15 김수정 (기사)

처음 편집부에 들어와서 첫 기사를 맡고 설렘을 느꼈던게 어제 일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노력의 결과물이 나온다니 기쁘면서도 묘한 기분이 듭니다. 1년동안 틈틈이 열심히 그림비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기사 쓰는것이 어렵고 무엇을 써야될지 몰라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부장님과 차장님이 많은 조언과 격려 덕분에 나름 잘 써 내려간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주신
부장님이랑 차장님 감사하고 우리 편집부 사랑하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발행정보

편집부장 : 14강주영

편집차장 : 14황아영

편집부원 : 14이정민, 15기범준, 15김남정
15김수정, 15김승현, 15박세준
15손재희, 15장태원, 15전보경
15조혜서

발행일 : 2015년 11월 26일

발행처 : 지식정보학부

'길이남을 편집국'

발행인 : 강주영

그림비

:그림비는 순우리말로